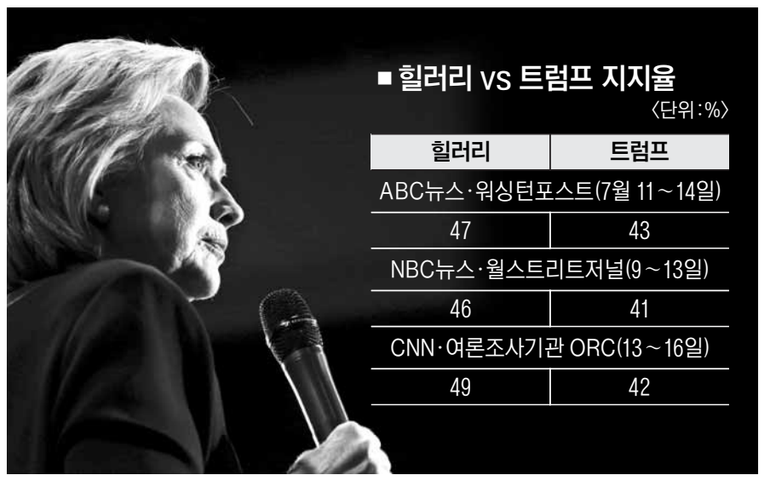
# 힐러리 우위 굳히려면 '경제·테러리즘' 잡아라

## 지지율 트럼프에 4~7%P 앞서
## 샌더스 지지 선언 효과에도
## 불신 이미지·제3당 선전 '발목'



■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단위:%〉

| 힐러리 | 트럼프 |
|---|---|
| ABC뉴스·워싱턴포스트(7월 11~14일) | |
| 47 | 43 |
| NBC뉴스·월스트리트저널(9~13일) | |
| 46 | 41 |
| CNN·여론조사기관 ORC(13~16일) | |
| 49 | 42 |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에 불안한 지지율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3개의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지지율은 트럼프에 4~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의 지지율은 47%로 트럼프(43%)보다 4%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조사에서 클린턴이 트럼프에 12%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에서 격차가 크게 줄었다.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조사에서는 클린턴(46%)이 트럼프(41%)를 5%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지난달 조사(5%포인트 차이)와 격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ORC의 공동 조사에서도 클린턴이 우세를 보였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각 49%, 42%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달 클린턴이 5%포인트 앞선 것에서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다.

클린턴은 호감도, 경험, 외교정책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트럼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트럼프가 클린턴에 앞선 것은 경제와 테러리즘 등 2개 분야였다.

클린턴은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공개지지 선언 효과를 봤다.

샌더스 지지층의 클린턴 지지율은 79%로 지난달(74%)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클린턴의 정직함과 신뢰도에 의문을 품는 의견은 여전히 많았다. 유권자의 65%는 클린턴을 정직한 후보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선 내내 클린턴의 발목을 잡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이달 초 불기소 결정이 난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국가기밀이 포함된 공문서를 주고받은 행위를 말한다.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펜스 부통령 후보 낙점이 훌륭하거나 꽤 좋은 선택이라고 답한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CNN과 ORC의 여론조사에선 군소정당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에 게리 존슨(자유당), 질 스타인(녹색당)까지 넣은 4자 대결에서 존슨과 스타인은 각각 13%와 5%의 지지율을 얻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각 42%, 37%의 지지율을 얻었다.

CNN은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제3의 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게 전형적 현상인데 존슨의 지지도는 경합주에서 힘을 가질 만큼 호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어느 대선 때보다 높은 가운데 주로 젊은 층이 제3의 당 후보에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35세 이하 유권자 가운데 존슨의 지지율(20%)은 트럼프(21%)와 맞먹었다. 스타인(10%)도 자신이 얻은 전체 평균 지지율(5%)보다 높은 지지를 젊은 층으로부터 받았다.

ABC뉴스와 WP는 이달 11~14일 816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표본오차 ±4%)했다. NBC뉴스·WSJ(9~13일)과 CNN·ORC(13~16일)의 여론조사는 각각 1천명, 872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 ±3.5%다. /연합뉴스

# 불청객 올까 두려운 '트럼프 대관식'

## 美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억만장자 부동산재벌인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사진)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개막한다.

경선 과정에서 두 쪽이 난 공화당은 전대를 계기로 당 통합을 이뤄내고 트럼프를 앞세워 8년간 빼앗겼던 정권을 탈환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역대 가장 논란이 많은 대선후보로 꼽히는 트럼프를 둘러싼 찬반 시위대의 충돌 가능성은 물론 미국 안팎의 잇따른 테러와 경찰 저격사건으로 치안에 초비상이 걸린 터라 전대 자체가 무사히 치러질지조차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트럼프의 후보 등극에 반대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불참해 행사는 '가족 잔치'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1시 메인 행사장인 농구경기장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경쟁자 16명을 차례로 무너뜨린 트럼프를 당 대선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트럼프 대관식'의 개막을 알린다. 나흘간 계속되는 전대에서 공화당은 보호무역과 멕시코 접경의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제한 등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 공약을 전폭 수용한 정강을 채택하고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

트럼프는 마지막 날인 21일 후보수락 연설에서 정권 탈환을 위한 구상을 밝히면서 당의 전폭적인 협력 등 통합을 호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당 화합과 축제의 잔치로 만들려는 공화당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지지, 반대파 간의 충돌 가능성과 잇단 경찰의 피격 사망, '전당대회 구역'에서의 총기소지 허용 등이 맞물려 전대 기간 유혈 총격 사태나 폭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특히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에 이은 잇단 흑인의 경관 저격사건이 터진 가운데 '전대 구역' 내 총기 소지가 허용된 터여서 유혈 총격 사태와 폭동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후 현재 대회장인 '퀴큰론스 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전대 구역'(2.73㎞)에서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터키 '피의 숙청' 쿠데타 연루 5700여명 체포

## 국제사회 유혈 우려 법치 촉구

17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탁심광장에서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뒤로 에르도안 대통령 초상화가 보인다. /연합뉴스

터키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를 빠르게 진압하며 군인 3000명과 판·검사 2745명을 '쿠데타 연루' 혐의로 체포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총리가 사형제 부활까지 거론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쿠데타 후폭풍으로 또 다른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터키에 법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이하 현지시간) 터키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15일 밤 발생한 '6시간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 등 2839명을 이날까지 체포했다. 이 가운데는 고위 장교만 52명에 이른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아잔시가 군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쿠데타의 주모자로 알려진 전직 공군 사령관 아킨 외즈튀르크, 육군 2군 사령관 아뎀 후두티 장군, 3군 사령관 에르달 외즈튀르크 장군 등이 포함됐다. 터키 정부는 또 알파르슬란 알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전국의 판사와 검사 약 2745명을 쿠데타 연루 염의로 해임, 체포했다.

베키르 보즈다 법무장관은 17일 국영 TRT방송에 "지금까지 군 인사 3000명과 판·검사 2750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터키 역사상 최대규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을 추방해 터키로 넘길 것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40 유비의 최고 참모 법정

법정(法正, 176-220)의 자는 효직이며 우부풍 미현 출신이다. 건안 초 동탁의 난으로 기근이 들자 촉에 들어가 익주목 유장에 귀의해 신도현령과 군의교위를 지냈다. 후일 유비를 익주로 맞아들여 촉한 건국에 크게 기여했다.

유장은 유언의 뒤를 이어 익주목이 되었으나 우유부단하여 사직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 처음에는 조조에 기울어 사신을 보내 친선에 힘썼다. 그러나 조조가 중원을 평정한 후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자 참모 장송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조와 단교하였다. 조조는 한중의 장노를 평정한 다음에는 익주의 유장을 칠 속셈이었다. 유장은 먼 인척인 형주의 유비를 원군으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법정과 장송은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정은 두차례 형주를 방문해 제갈량을 만나 뜻을 같이 하였다. 유비를 익주의 새로운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길 외에는 살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유비에게 "장군의 영웅다운 재략에 의지하고 유장의 유약함을 틈타십시오. 그런 다음 익주의 풍부한 자원에 의지하고 험준한 기세에 기대십시오. 그러면 사업을 이루는 일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계책을 내놓았다.

유비는 유장의 항복을 받아내어 익주의 새 주인이 되었다. 형주와 익주를 바탕으로 중원으로 나아가는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공이 컸음은 물론이다. 그는 촉군태수 겸 양무장군이 되었다. 제갈량과 법정은 익주 통치에 관해 생각이 달랐다. 제갈량은 법가주의 입장에서 법률을 엄격히 제정하려 하였다. 오랫동안 유장의 통치로 질서와 기강이 많이 흐트러졌기에 엄정한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반면에 그는 "옛날에 한 고조 유방이 관중에 입성하자 약법삼장(約法三章)을 간소히 시행해서 민심을 얻었다"며 공명의 엄(嚴)과 대조적으로 관(寬)을 주장했다.

그는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허정을 중용할 것을 건의했다. 제갈량은 이미 70을 넘긴 허정의 기용을 반대했다. 이름만 높고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지금 그를 채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중원에까지 이름이 난 허정을 쓰지 않은 것을 보니 유비는 속이 좁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기용을 건의했다. 유비는 허정을 좌장군장사에 임명했다.

그는 촉군태수가 되자 과거에 조그만 은혜를 베풀거나 자신을 헐뜯고 다치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거나 보복하였다. "법정이 지나치게 제멋대로 하니, 형벌과 상을 내리는 그의 행위를 누르게 해달라"는 상소가 쇄도했다. 제갈량은 "그는 주군을 도와 하늘 높이 날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이를 전해 듣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217년 유비에게 조조가 장악한 한중 공략을 건의했다. 한중 공략에 종군했고 직접 요충지인 정군산 탈취 작전을 지휘했다. 한중 공략을 건의하면서 상책으로는 조조를 섬멸할 수 있고 중책으로는 옹주와 양주를 얻을 수 있으며 하책으로는 요충지를 굳게 지켜 지구전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중은 천하의 요새로서 조조가 이곳의 방비를 굳건히 하면 익주가 고립되고 중원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가 지휘하는 촉군은 조조군과 여러 달 대치하면서 굳건히 지켰다. 조조는 식량도 떨어져가고 사상자가 속출해 결국 회군하기로 결정했다. 한중 싸움에서 노장 황충은 조조측 하우연의 머리를 베었다. 조조는 후퇴하면서 "나는 본래 유비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유비가 219년 한중왕이 되자 그를 상서령, 호군장군으로 삼었다. 220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법정의 도움이 있었기에 유비가 익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법정은 일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예견하며 기이한 계획과 책술을 가졌지만 덕이 미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 치밀한 전략으로 한중을 유비 수중으로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사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45%)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나이트옆 10층중 10층 스카이라운지상가 83㎡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8억7천7백
★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대 인근 운전학원부지 토지 6,655㎡ 건물443㎡ 감정가 27억6천1백 ▶최저가 27억6천1백
★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인근 영화관 1층 684㎡ 상가 감정가 35억5천5백 ▶최저가 19억9천(56%) 식당, 대형판매장 적합
★ 광주 광산구 안청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광주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모텔 토지 363㎡ 건물1,024㎡ 감정가 9억9천3백 ▶최저가 5억5천6백(56%) 코너위치
★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가 2억6천5백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유동인구많음 ▶매매 55억원
★ 광주 북구 유동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수익위치좋음 ▶매매 20억원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가 17억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 2천3백 융 18억 ▶매매 48억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융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요양병원하가취득)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480㎡ 업무지원 시설부지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조정무)

수익형 추천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융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융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펜션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 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제주도 서귀포 시강정마을펜션, 빌라 부지 적합 4,000㎡ 주택 28세대 가능수익형 28억선교환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 18개 투룸 6개 쓰리룸 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버스 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목포시연산동 롯데수퍼 인근대로변 버스 정류장 앞 대단위아파트 단지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 상가 사무실, 2~4층 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